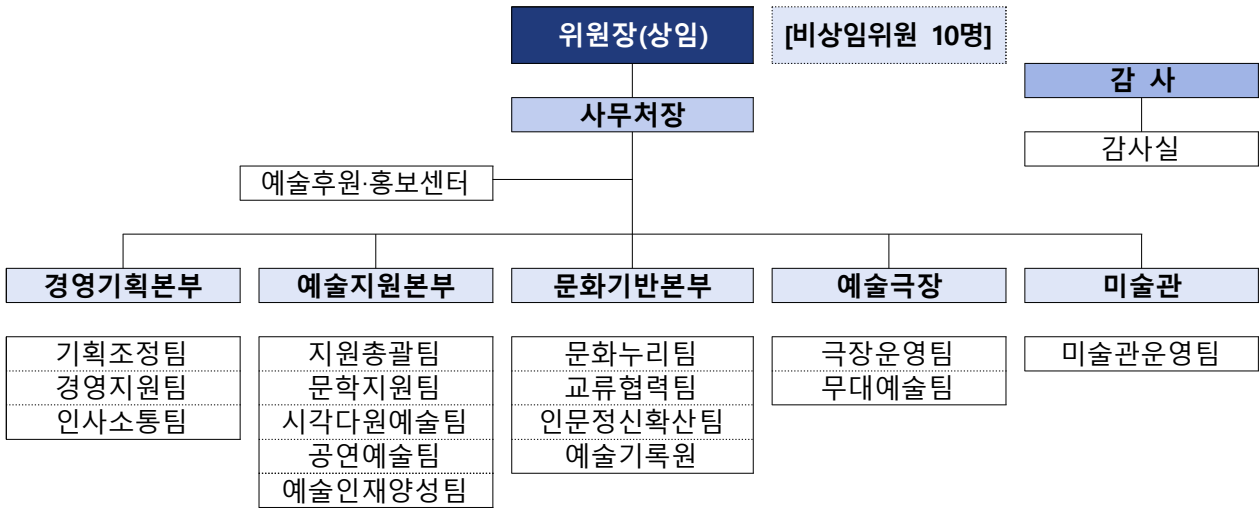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무보고

2026. 1. 13.

I. 일반현황

① 기구 및 조직 현황(1처 3본부 1극장 1관 1실 1센터 1원 14팀)



② 인원 현황

* '26년 1월 기준

구 분	계	임원	정규직 소계	정규직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정원	260	2	258	149	109
현원	255	2	253	147	106

③ 예산 현황(문화예술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A)	2026년 예산(B)	증감(B-A)	(B-A)/A
수입	자체수입	93,654	93,623	△31	-
	정부내부수입 (일반회계 및 타 기금 전입금)	397,707	420,871	23,164	5.8
	여유자금회수	86,298	118,055	31,757	36.8
합계		577,659	632,549	54,890	9.5
지출	사업비	433,887	516,371	82,484	19.0
	예술창작지원	64,677	69,118	4,441	6.9
	예술인력육성	22,358	23,897	1,539	6.9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18,000	28,000	10,000	55.6
	예술인생활안정자금	907	780	△127	△14.0
	예술의관광자원화	4,923	4,523	△400	△8.1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27,919	29,341	1,422	5.1
	문화예술향유지원	280,581	327,638	47,057	16.8
	예술산업금융지원시범사업(용자)	-	20,000	20,000	순증
	한스타일육성지원	8,924	8,032	△892	△10.0
	문화예술해외교류	910	822	△88	△9.7
	공예문화산업육성	4,688	4,220	△468	△10.0
	기금운영비	23,446	22,981	△465	△2.0
	정부내부지출	22,253	22,572	319	1.4
여유자금운용	98,073	70,625	△27,448	△28.0	

II.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1 '25년 성과 및 보완점

□ 한국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 강화

- (성과) K-기초예술에 대한 전 세계 폭발적 관심, 정부 문화예술 정책 시너지 바탕 한국 국제교류 추진 동력 및 확장성 확보
 - *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한국 개최(5.27~31) 전세계 94개국 406명 참여, '25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전시 외신 선정 '꼭 보아야 하는 국가관 전시 TOP 5' 선정(Monocle, '25.5월)
 - * 한국 음악가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국제콩쿠르세계연맹(WFIMC)과 MOU 체결, 차세대 아티스트를 위한 국제 커리어 포럼 <비욘드 더 스테이지> 공동 개최('25.12월)
- (보완점) 1회성·계기성 교류 넘어 지속가능한 기초예술 세계화 위해 교류지역 다변화, 특히 인바운드 교류 집중 지원 필요

□ 긴 안목의 안정적·지속적 지원으로 예술가 창작기반 공고화

- (성과) 한국 예술가 대상 안정적·총체적 창작 지원으로 장르별 우수 창작성과 창출 및 대외 확산

구분	주요 지원방향
문학	작가 창작역량 확산 위한 재정·공간·비평담론·향유 등 다각적 지원
시각예술	지자체, 유관기관 연계·협력으로 지역 우수작가 발굴해 중앙·해외진출 지원
공연예술	안정적인 단체 창작기반 조성 → 우수작품 개발 → 대표 예술단체로 성장

· 한강 작가 2024 노벨문학상 수상

- * 해외레지던스('98), 신진문학가('00), 예술창작지원('05), 해외레지던스('14) 등

· 뮤지컬 <마리퀴리> 2024년 웨스트엔드 진출

- * 창작산실('18), 창작뮤지컬해외유통('21),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24) 등

· 성해나 작가 <혼모노> 신동엽문학상, 김준현 작가 <남아있는 사람> 동아일보 신춘문에 수상

- *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25)

· 지역 우수작가 17인 국내 일민미술관, 금호미술관, 호주 Sol Gallery 전시

- * 지역예술도약지원('25)

· 기타 국내외 유수 전시·공연 초청 및 수상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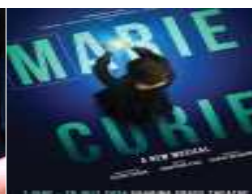
문화예술세계총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강 작가



뮤지컬 마리퀴리



지역예술도약지원

- (보완점) 전통적 장르기반 창작 지원을 넘어 융복합, AI, XR 등 새로운 창작 가능성을 반영한 신규 지원 포트폴리오 필요

□ 청년예술가 성장형 맞춤 지원

- (성과) 청년예술가 성장 단계별 지원으로 중추 예술가 도약 기회 제공

<p>예비예술인 조기발굴 및 육성 - '25년 32개 단체(750여명) 참여</p> <p>· 대학 재학 중 예비예술인 대상 선제적 지원 통해 제도권 진입 전 창작 역량 강화</p>

<p>청년예술가 도약 지원 - '25년 100여명 지원</p> <p>· 진입 초기 청년 예술가의 한 단계 더 성장 위한 도약 지원으로 유망 예술가 성장 촉진</p>
--

- (보완점) 청년예술가로서 데뷔 이후 창작에 '지속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미진("예술활동 지속 어렵다" 응답 80%('24 예술인실태조사))

□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경로 다각화

- (성과) 민간 재원유치 방식 다각화로 후원 인지도 및 유치실적 제고

구분	주요 지원방향
대중후원	아트포레스트페스티벌, 꿈발펀딩, 연극내일기금 등 후원 브랜딩 및 후원사업 발굴로 예술 후원 인식 제고
기업후원	예술계 대표기관으로서 후원매개 기능 강화
지역후원	수도권 중심의 기업후원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신규사업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 신규개발

· 기업의 문화예술 기부금 연계 145억원(삼천리-英옥스포드대 K-컬처 연구 25억 원 등)
· 기업기부 매칭지원 공공재원(문예기금) 투입 대비 1.5배 민간재원(기업기부) 유치효과
· 전국 25개 지자체에서 223개 기업의 기부금 22억 원 유치 및 후원결연 227건

 <p>아트포레스트 페스티벌</p>	 <p>"소극장 학전을 잇는" 꿈발펀딩</p>	 <p>"배우 신구 박근형 기부 계기" 연극내일기금</p>	 <p>문화예술후원매개 우수기관 인증</p>	 <p>삼천리-英옥스포드대 K컬처 연구후원</p>
---	---	--	---	---

- (보완점) 일시적 후원 우수사례를 일상적 후원 모델로 발전시켜 문화 예술 후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 및 참여도 제고 필요

□ 국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성과) 문화예술 대표 복지 브랜드 역대 최대 지원 실현
 - 문화누리카드 역대 최대 발급 인원 및 역대 최대 지원금
 - * 발급자 '25년 272만명(10만명↑), 1인당 지원금 '25년 14만원(1만원↑)
 - * 소외대상 '찾아가는 가맹점(8회), '복지등기우편(2,000명 대상)' 도입 등 이용 활성화
 - 사회 진입기 청년 대상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118,743명)
 - * '25년 전시, 연극, 무용, 국악, 클래식, 콘서트 등 총 162,767건

- **(보완점) 사업별 세대·지역 격차 해소를 통한 사각지대 제거 필요**
 - 문화누리카드 자발적 이용 어려운 노령층 발급자 이용지원책, 지역간 가맹점 불균형 대응 필요
 - * 60대 이상 발급자 '23년 47.7% → '24년 49.2% → '25년 50.4%
 - * 전체 오프라인 가맹점(33,376개) 중 33.0%(11,006개) 수도권 위치('25.12월 기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인프라 부족 지역, 저소득·비진학 청년 등 구조적·정책적 사각지대 지원 대책 필요

② 향후 업무추진방향

- **세계 속 한국 문화예술 역할 확대 위한 새로운 협력모델 개발**
 - **(對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협력 확대) 높아진 K-기초예술에 대한 호감 바탕, 아시아권 문화예술 협력 모델 개발**
- **AI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및 창작지원 고도화**
 - **(행정혁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누적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정형 데이터 자산화, 민간 데이터 개방을 통한 활용도 제고**
 - **(창작혁신) AI·통섭적 지원 위해 기존 장르별 칸막이식 지원 탈피**
 - 고성능 창작도구·인프라 보급, 인간 창의성+AI 연산 능력 결합 모델 지원
- **보다 촘촘히, 청년예술인 자유로운 창작 시도 위한 지원사업 고도화**
 - **(지속가능 창작 환경) K-Art 청년창작자 지원(일반회계, 180억)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위치한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운영체계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인상('26년 1인당 15만원), 생애주기별 특성 반영 추가 지원(청소년·준고령 1만원) 및 민간 간편결제 확대 도입, 쇼핑물 연계 등 세대·지역격차 해소 노력**
 - **(청년문화예술패스) 청년 경험범위 확장을 위해 바우처 사용 분야 확대**
 - * '25년 연극,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페스티벌, 전시 → '26년 영화(상반기)·도서(하반기) 추가

Ⅲ. 중점 추진과제

①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시도를 위한 집중지원 추진

□ K-기초예술의 글로벌 도약과 창작 생태계 질적 혁신

○ (도약) 세계적 수준 창작 결과를 위한 지원 규모 대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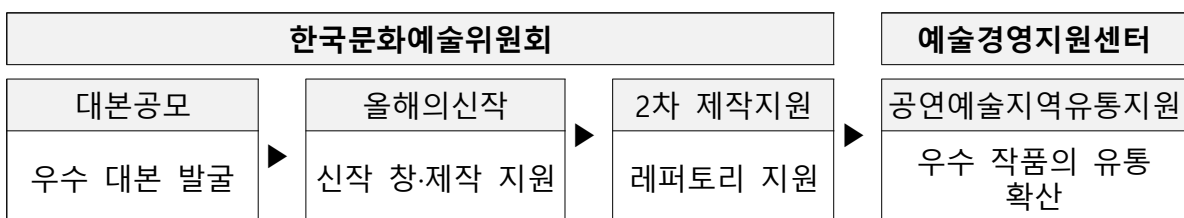
- (문학 : K-서사 강화) 단편 위주 창작을 넘어('26년 6억원, 2천만원x30명), 노벨상 등 국제적 성과 견인 위한 장편소설 집필 전용 지원트랙 신설 ('26년 6억원, 3천만원x20명)
- (공연 : 고품질 전략) 예술현장 수요 반영 작품당 제작 지원금 상향 (최대 2→2.5억), '선택과 집중'으로 대형 레퍼토리 성장 지원('26년 127억, 약 120건)
* 기관 보유 시설 기능 연계 창작 파급력 극대화(극장 제작협력, 기록원 영상 아카이브)
- (국제 : 인바운드) 장르·지역 기반 특화 인바운드 레지던시 운영으로 국내외 창작자 간 네트워킹, 공동 창작을 통한 K-Arts 지평 확장('26년 13억원, 약 40건)

○ (연결) 지역과 민간을 잇는 창작 인프라 구축

- (문학 : 공간의 전국화) 수도권에 집중된 문학창작실을 지역으로 확대 개편('25년 10억원 143개소→'26년 20억원 256개소), 비수도권 비중 확대(17%→25%)
- (시각 : 협력 고도화) 기관 보유시설(미술관)-지자체-공공-민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공동 창제작 및 발표 공간 공유, 네트워킹 등 시너지 창출
* 아르코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LG아트센터, 백남준아트센터 등 전시기획 협력

○ (선순환) 창작에서 확산까지, 가치사슬 완성

- (공연-유통 연계) 예술위원회 우수한 창작 결과를 타 공공기관(예술경영 지원센터) 지원사업 연계, 시장까지 진출하는 지속가능 지원체계 구축



- (담론과 향유) <백남준 100주년 글로벌 아카이브(美 게티연구소 협력)> 등 비평 강화 및 문학주간 개최 지역 전국 단위로 확장('26년 9억원)

□ **창작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지원사업 행정절차 개선**

- (**정보제공**아트누리 플랫폼 고도화) 문화예술지원사업 정보 플랫폼 아트누리 UI/UX 재정비, 아트누리 플랫폼 이용기관 확대를 통한 지원사업 정보 제공 규모 및 접근 편의성 제고
- (**심의제도**심의위원 후보단 운영제도 정비) '23년 재편한 후보단 임기 만료 예정(~'26.10월)으로, 현 후보단 임기 중 접수한 주요 VOC를 바탕으로 운영제도 재정비 추진(현 52개 장르 699명 구성)
 - (**공정성 제고**) 지원신청자와 이해관계에 따른 불공정 심의 가능성 원천 차단을 위해 「지원심의 운영규정」에 '기피'조항 신설
 - (**모니터링 강화**) 전담심의위원에 대한 지원단체 대상 의견조회 절차 신설
- (**행정개선**예술인 행정부담 경감) 예술인의 창작활동 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보조금 정산절차 간소화 및 주요 공모사업 자부담 의무 폐지('26년~)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 개선을 통한 공공예술 진흥기반 조성**

- (**현황**) 소수 작가 독점, 심의위원 전문성 부족, 작품 사후관리 부실, 전담 실행·대응 기관 부재 등으로 인한 업무 추진 동력 미비, 선택적 기금제 지역 재분배 요구 등 지속 발생
- (**개선**) 제도 공정성 확보, 사후관리 고도화를 위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심의제도 전문성을 활용한 제도 추진체계 개편 검토
 - (**업무 표준화**) 표준 업무 프로토콜 및 서식 등을 연구·개발하고 통합심의 위원풀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지역별 업무 일관성 제고

② 청년예술인 성장을 위한 기회 지원 확대

- 청년(예비)예술인의 현장진입-성장-도약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 (단계별 성장지원) 청년(예비)예술인의 안정적 예술현장 진입과 지속적 예술활동을 위한 기회 제공

예비예술인 (‘26년 59억원)	<최초 시도 지원>
	예비예술인의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예술현장 경험* 제공 및 현장발표 지원 을 통한 예술현장 진입 기회 제공 확대**
	* 창작, 실연, 기획, 기술, 행정, 네트워크 등 ** ‘25년 예술대학·예술단체 32개 → ‘26년 예술대학·예술단체 39개

청년예술인 (‘26년 20억원)	<후속 발표 지원>
	청년예술가의 지속적인 발표 활동 을 독려하여, 미래 문화예술계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 ‘26년 문학·시각·공연예술 등 분야별 청년예술가 70명(예정)

성장 및 도약 후 지속적 예술활동

- (역량 강화지원) 청년예술인의 전문성 및 국내외 협업역량 강화
 - (직무 전문성) 문화예술분야 민간 및 국공립 단체의 연수단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및 연수단원 직무교육 제공, 협력기관 확대
 - * ‘26년 85억원 465명 일자리 지원(기획·경영 297명, 창작·실연 168명)
 - (융복합 및 네트워킹) 한국 및 글로벌 청년예술가-프로듀서-엔지니어 간 융복합 창·제작 활동 지원을 위한 단계별 협력 네트워킹 프로그램 APE 캠프 운영(APE, Artist-Producer-Engineer)
 - * 국제 컨퍼런스 및 국내외 통합 캠프 운영 → 리서치트립 → 쇼케이스 등 단계별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체계 운영

단계	기반 조성(Back-end)	실행 및 몰입(Middleware)	확산 및 지속(Front-end)
핵심목표	전문가 풀(Pool) 구축, 거버넌스 혁신	이론(담론)과 실천(제작)의 결합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선순환
주요내용	[참여형 거버넌스] 디렉터 그룹 신규 위촉 전문 멘토진(A·P·E) 강화 에이프톡(Alumni) 협력	[사전행사] 사전캠프 및 ‘25 성과공유 국제 컨퍼런스 및 청년 포럼	[후속지원] 아이데이션&리서치트립 레지던시 에이프톡 창작지원
	[글로벌 기반 마련] 주빈국 제도 신설 국내외 기관협력 확대	[본 캠프] 국내외 통합(심화) 운영	[성과확산] ‘26 성과공유회 교류형 쇼케이스

- 청년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집중지원 사업 신규 추진
 - ('26년 신규K아트 청년 창작자지원)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업목적)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및 기초예술의 원천창작 활성화
 - * (데뷔 전) 예비예술인지원 - (데뷔 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이에 안정된 창작활동 수행 및 레퍼토리 축적을 위한 준비 단계 지원사업 설계
 -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순수예술 청년 원천창작자 3,000명
 - (지원내용) 전국 지역별 청년 창작자 창작활동비('26년 180억원 9개월간 9백만원)
 - (추진체계) 문체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자체(지방비 매칭)·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 청년 창작자

③ 자유로운 창작기반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자원 다각화

□ 민간 후원 활성화로 공적재원 의존도 완화

- (기업후원) 기업이 예술단체를 후원할 경우 후원금의 최대 100%까지 매칭 지원('26년 35억원) 제공, 경제단체 협력 통해 기업에 후원 정보 제공하는 '후원매개' 역할 강화
 - * 대한상공회의소 <사회적가치페스타> 등 주요 경제단체를 통한 후원 기업풀 확보, 후원우수기업(정부인증), 기업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기업 네트워킹 확산
- (전국확산) 비수도권 기업과 지역문화재단이 예술단체 지원하는 경우 문예위 추가 매칭(지역재단1:기업1:문예위1) 지원('26년 40억원)

□ '향유'를 '기부'로 연결하는 대국민 참여 유도

- (후원활성화) 아동·청소년(꿈발펀딩, 연극내일기금), 신진예술가 해외진출(케이아트펀드), 팬덤기부 등 기부 효능감 높이는 타깃 맞춤형 후원상품 개발
 - (꿈발펀딩) 대학로 소극장학전을 이은 <아르코꿈발극장>의 어린이 관람환경 개선 및 아동·청소년용 작품 제작
 - (연극내일기금) 친구, 박근형의 <고도를 기다리며> 마지막 공연 기부를 계기로 청년연극인을 위한 교육 및 발표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케이아트펀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시각예술 및 클래식 분야에서 신진예술가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 (팬덤기부) 유명 아티스트의 예술후원에 대한 예우와 확산 홍보
- (캠페인 확산) 대중 축제(아트포레스트 페스티벌), 타깃 행사(예술후원인의 밤, 채리티 대회 등) 통해 예술소비가 후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문화 조성
 - (아트포레스트페스티벌) 가족 대상의 대중적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세대의 가치소비와 후원 연계
 - (예술후원인의 밤, 채리티 대회 등) 기업인, 전문직종사자 등의 예술 애호를 예술후원으로 연계하는 차별화된 모금행사 추진

④ 일상 속 국민 문화향유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로 '문화안전망' 확충
 - (권리보장) 실질적 문화소비 여력 감소에 따라, 지원금액 현실화로 기본권으로서 문화향유권 보장
 - 기본지원 1인당 15만원(전년 대비 1만원 인상)
 - 생애주기별 1만원 추가 지원
 - 문화욕구 왕성한 청소년(13~18세), 은퇴 전후 전환기 준고령(60~64세) 42.8만명 대상 1만원 추가 지원(해당연령 지원금액 총 16만원)
 - (이용장벽 해소) 사용처를 모르거나 결제 방식을 몰라 사용을 포기하는 고령층 및 정보 취약계층 대상 적극적 행정지원
 - (도서·벽지) 섬 지역 병원선 등 특수 인프라 활용 홍보
 - (디지털 약자) 고령층을 위한 큰글씨 가맹점 책자 제작, '복지등기 우편' 통한 1:1 안내 강화
 - (알림서비스) 국민비서(구빠) 활용 맞춤형 사용 안내
 - (기초예술분야 이용 활성화) 6대 권역별 공연장·미술관 시설정보 웹전단 제작·배포를 통해 기초예술 분야 이용 편의성 제고

- [청년문화예술패스] 미래 관객 육성을 위한 청년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지원대상 확대) 더 많은 청년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연령 20세까지 확대
 - 대상 및 인원 : '25년 19세 16만명→'26년 19~20세 28만명
 - (지역청년 우대) 비수도권 청년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배정하여, 지역 내 문화소비 활성화 유도
 - 수도권 15만원(국비 10만원+지방비 5만원), 비수도권 20만원(국비 15만원+지방비 5만원)
 - (사용처 확대) 청년들의 실제 문화 선호도 반영, 적용 장르 확대를 통한 제도 실효성 확보
 - (장르확대) 이용자 설문 결과 반영 영화, 도서 분야까지 확대
 - (협력강화) 지자체 및 예매처 협업해 패스 소지자 전용 할인 혜택 발굴 등